'99 Satellite Expo를 마치면서

김재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1995년 8월 5일 무궁화 위성 1호가 발사되어 국내 위성통신 시대의 서막이 올렸건만 국내에서는 위성방송의 침체, 위성서비스 개발의 미흡, 지상망과의 차별성 및 홍보미흡 등으로 위성 서비스의 활성화는 침체의 수레바퀴를 돌고 말았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IMF가 닥쳐와 대부분 산업체에서는 장기사업을 유보 또는 철수함에 따라 위성산업은 또 한번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다. 1998년 본 연구회 주관으로 위성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수 차례 있었지만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위성분야가 다가오는 21C 주요한 전송매체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이대로 머물기는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1999년에는 DACOM의 Orion위성을 시작으로 우리별3호, 무궁화 위성3호, 아리랑위성1호에 이르기까지 국내 위성 4개가 발사되는 뜻있는 한 해로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국내 위성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원년으로 기리고자 위성 Event사업을 구상하던 중 위성전시회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시회 구상을 본 연구회에 '99년 1/4분기 정기이사회에 기본취지를 제안하고 승인을 받았으며, 4월 상임이사회에 기본계획을 설명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전시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머나먼 4개월의 항행을 위한 닻을 높이 달게 되었다. 먼저 이사회에서는 명예위원장에 숙고 끝에 오명 동아일보사 사장님을 천거하여 수락을 받아내어 행사운영에 많은 힘이 되었다.

그러나 막상 조직위원회에서는 내심 걱정도 많았으나 "We can do!"라는 기치하에 조직위원장님, 사무국장과 손발을 맞추어 하나 둘 순조롭게 준비하여 나갔으나 가장 힘든 것은 역시 광고와 전시부스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국내 산업체는 그간 IMF 경제체제 하에서 위성산업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추진이 유보 되는 등 위축국면을 맞이하여 위성사업자 및 대기업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나왔으며, 위성분야가 미래 첨단산업의 한 분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중소기업에서는 본 전시회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여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어서 전시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원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었다. 학계에서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수차례 의견교환을 나누어 홍보의 필요를 인식한 후 협조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적극적인 힘이 되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주어 조직위원들은 성공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전시 참가업체의 권유, 광고후원사 및 협찬업체 모집 등 순간순간 천당지옥을 갔다왔다 하는 중 우여곡절 끝에 전시회개막 일주일 전에 가서야 50개사(기관) 70개 부스를 접수하여 한숨을 놓게 되었다. 본 전시회에 정부(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참가한 것과 위성통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많은 대학교가 본 전시회에 참가하여 준 것은 특이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이제는 전시회장인 마당을 준비하여 차려 놓았으나 찾아오는 손님을 유치하는 것이 다음 숙제로 되었다. 이사회 및 조직위원회 회의 등에서 교육관 준비 및 전시회 참가자 유치방안 등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주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본 전시회 준비기간 중 DACOM이 추진하던 Orion위성발사가 실패하여 우울한 날도 있었으나, 9월 5일 무궁화위성3호가 성공리에 발사되어 본 행사가 한껏 의의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드디어 9월 17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망의 전시회 개막일이 다가왔다. 많은 초청인들과 관련자들이 개막식에 참여하여 성황리에 전시회가 개막되어 그 동안 수고한 대가가 물거품이 될까 조바심을 갖던 조직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 3일간의 전시회에는 8,000천여명의 참관인이 입장하여 의외의 성과를 갖게 되었으며, 조직위원들에게 많은 분들의 격려가 그간의 갖가지 어려움을 말끔히 씻어 가게 하였으며, 본 전시회를 헌신적으로 준비한 회장님, 사무국장 등의 얼굴에도 가슴 뿌듯한 웃음의 눈망울이 맺혀 있는 것을 보고는 나 역시 눈 주위가 무겁게 느껴졌다.

▲ 전시회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필자의 모습

본 전시회를 통하여 국내위성산업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조명하여 보면 대기업의 사업축소, 중소기업의 약진을 들 수 있으며 민간 뿐만 아니라 국방 등 수요의 개발과 동시에 위성을 이용한 독특한 서비스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성서비스 개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시회를 위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위성전시회의 특성을 다시 한번 규명하여 특성에 맞는 기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조직위원회의 세부 업무 할당이 철저히 이루어져 업무의 분담화가 있어야 하겠다.

끝으로 전시회를 기획한 담당자로서 본 전시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명예위원장님, 회장님, 부회장님, 관련 이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보냄과 동시에 전시회에 참여하여 주신 정부, 사업자, 연구소, 대학교 및 참여업체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금년 전시회를 아쉬움 속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9 Satellite Expo여 안녕!!!

(필자 : '99 Sat-Expo 기획위원)